

청소년의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주 호** · 박 형 준***

【요약문】 금융 부문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현재 및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의 금융이해력을 갖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교육 및 금융이해력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금융이해력 관련 연구는 주로 인지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개인의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 나아가 성공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의적 영역의 금융태도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호주뉴질랜드은행에서 제시한 금융태도 측정 척도를 번안하여 활용하였고,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금융업 종사 부모,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학교 금융교육 경험, 금융 관련 대화 빈도, 본인 명의 통장 보유 여부, 금융지식 등이 청소년의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일수록, 금융업 종사 부모가 있을수록 금융태도 점수가 낮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금융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금융 관련 대화를 많이 할수록, 본인 명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금융지식이 높을수록 금융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청소년의 금융태도 연구에서 추후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금융태도, 청소년, 금융이해력, 금융교육, 금융지식, 금융행위

* 이 논문은 이주호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1저자,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박사과정(dlwnggh0821@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hjoon23@snu.ac.kr).

I. 서론

급변하는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달 및 국제화에 따라 금융부문이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높은 수준의 금융이해력을 갖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삶과 금융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람들에게 금융이해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OECD/INFE(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기구)는 ‘건전한 금융의사결정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금융웰빙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금융인식, 지식, 기능, 태도 및 행동의 조합’을 의미하는 금융이해력의 하위요인으로 금융지식,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OECD, 2020).

하지만 금융이해력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지식과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선(2016)은 금융교육의 연구 주제를 하위 준거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는데, 금융지식은 전체 금융교육 연구 주제의 58.5%를 차지하였고, 금융태도에 대한 주제를 다룬 연구는 11.0%에 그쳤다는 점을 바탕으로 금융교육 관련 연구가 금융태도에 대한 주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보다 최근의 연구인 이주형(2021) 역시 금융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단순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고, 금융태도가 중심이 아닌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지는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해외의 경우, OECD/INFE에서 실시하는 금융이해력 조사의 하위 영역으로 금융태도(financial attitude)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측정 도구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Bochialini, Ronchini, & Torti, 2022).

높은 수준의 금융지식과 합리적인 금융행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이고 올바른 금융태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금융웰빙을 실현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이 합리적인 자산 관리 행위를 하면서도 스스로 부담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또는 높은 수준의 금융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자신에 대한 신뢰 혹은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금융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의 상황을 그러한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금융웰빙 실현을 위하여 금융이해력의 한 요소로서 금융태도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연구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한편, 최근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금융환경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스스로 금융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년은 스마트폰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판매하며, 은행 계좌를 만들어 저축을 하거나, 선불카드나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보유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출 결정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는 부모, 또래 친구, 학교 등을 통한 금융사회화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태도나 가치관, 행동 등은 성인이 된 이후의 금융생활에서도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금융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성공적인 금융웰빙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금융태도 및 금융역량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태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본 뒤, 청소년의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 실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금융교육 분야에서 청소년의 성공적인 금융생활 영위를 위한 정의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소년의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청소년의 금융교육 연구에서 추후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II. 선행 연구 검토

1. 금융태도의 의미

1) 금융태도의 개념

금융태도의 정의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는 금융태도를 태도에 대한 심리학적 정의 및 경제태도의 개념을 바탕으로 ‘개인이 수용(동의) 정도의 형태로 재무 관리(금융 사안)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경향’이라고 정의내린 Parrotta와 Johnson(1998)이다. 이후 진행된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금융태도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Rai와 동료 연구자(2019)는 금융태도를 ‘재정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경향’으로 정의하였고, Garber와 Koyama(2016)는 금융태도의 정의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신념)과 행동하는 것(성향) 외에도 사람들이 느끼는 것(감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Haque와 Zulfiquar(2015)에 따르면 금융태도는 재무 관리 능력, 자신의 금융지식을 높이하고자 하는 동기, 지출과 저축에 대한

태도, 투자에서의 위험 수용 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금융태도는 특정 금융 사안에 대한 태도를 넘어서 개인이 금융생활 전반에 대하여 갖는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심리학에서 논의된 태도의 정의와 기존의 금융태도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을 종합하여, 금융태도를 ‘금융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가치관·감정·동기로부터 비롯된 개인의 심리적 경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금융태도의 하위요인

지금까지의 금융태도 관련 연구에서는 금융태도의 하위요인이 각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INFE(2022)는 ‘저축 선호’, ‘현재 선호’, ‘돈의 존재가치’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Bocchialini와 Rinchini(2019)는 ‘금융에 대한 관점’, ‘금융에 대한 감정’, ‘인식된 금융 역량’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의선(2016)은 ‘예산수립에 대한 태도’, ‘합리적 구매에 대한 태도’, ‘저축 성향’, ‘금융상품에 대한 태도’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호주뉴질랜드은행(ANZ, 2015)은 금융이해력의 정의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금융에 대한 심리적 반응 및 재무적 상황에 대한 태도 등을 포괄하는 금융태도 측정 문항을 개발하였고, 요인 분석을 통해 4개의 금융태도 하위 요인을 추출하였다. ANZ가 제시한 금융태도의 하위요인은 특정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에 대한 자기 신념을 의미하는 금융자기효능감(Financial self-efficacy), 금융에 대하여 스트레스 혹은 압박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금융스트레스(Dealing with money is stressful)¹⁾, 충동적인 경향 및 위험 수용 성향을 내포하는 충동성(Impulsivity), 그리고 미래의 재정적 성공에 대해 개인이 갖는 의지 혹은 희망을 의미하는 금융포부(Financial aspiration)의 4요인 구조이다.

금융태도를 설명하는 하위요인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금융태도는 일반적으로 저축·투자·예산관리 등의 기본적인 금융생활에 대한 선호도, 동기 및

1) 금융스트레스는 경제학에서 ‘정책당국과 금융시장의 불확실한 요인에 따라 경제주체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Dealing with money is stressful’ 요인을 ANZ(2015)에서 제시한 설명과 측정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재정적 문제에 대하여 개인이 갖는 스트레스 혹은 심리적 압박감’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금융스트레스’로 번역하였다.

재정적 목표, 금융에 대하여 갖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감정, 금융의사결정 및 행위의 합리성에 대한 태도, 금융 역량에 대한 자기 신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특성 등이 금융태도의 영향요인으로 연구되었는데, 성별의 경우 Bocchialini, Ronchini와 Torti(2022), 장경호(2021), 최재경(2016) 등의 연구에서, 연령의 경우 김정자(2003)의 연구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 공은희·성영애(2011), 최재경(2016) 등의 연구에서, 경제적 특성의 경우 장경호(2021)의 연구에서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금융교육 경험 역시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Boyce와 Danes(2004)의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재무관리 프로그램을 수강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출습관과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자신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Becchetti, Caiazza와 Coviello(2013) 역시 금융교육이 고등학생의 금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16시간의 금융교육이 금융이해력과 투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금융교육이 금융이해력과 투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금융행위 특성이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심리학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Fishbein & Ajzen, 1974, 1975). 하지만 Ajzen과 Fishbein(1977)은 태도와 행동이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즉,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행동 역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합리적인 금융행위가 지속된다면 부정적이거나 올바르지 못한 금융태도가 형성될 수 있고, 나아가 성공적이지 못한 금융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장경호(2021)는 금융행위 특성으로 재무 관리를 할수록, 금융 미디어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금융 관련 대화가 많을수록 대학생의 금융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식 수준 역시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지적 기능과 정의적 기능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새로운 개념을 학습할 때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태도를 자동으로 습득하기 때문이다(최병일, 2020). 실제로 ANZ(2021)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금융지식은 금융에 대한 자신감(confidence)과 통제력(control)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저축, 소비, 투자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병일(2020)은 감정적(Affective) 차원을 대변하는 변인으로서 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금융지식을 나타내는 금융이해력 점수가 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값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정화·윤정혜(2016)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이 투자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금융지식이 높을수록 능동적인 투자태도를 가지며 금융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청소년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주도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금융생활 주체로서 금융웰빙 실현을 위한 역량을 함양하고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태도를 측정하고 그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금융태도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돈에 대한 태도, 화폐에 대한 신념, 투자에 대한 태도, 재무관리 태도 등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금융태도를 포괄적으로 측정하기보다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태도로 측정하고 분석한 연구가 대다수였다. 화폐, 투자, 재무관리 등 금융의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인이 금융생활 전반에 대하여 갖는 포괄적인 태도, 즉 금융태도를 측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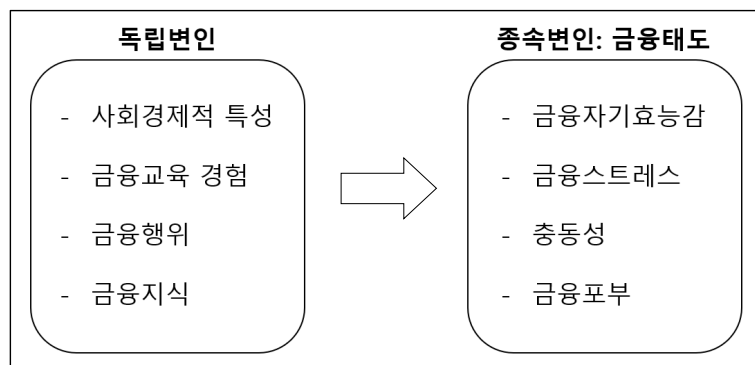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금융태도의 측정 문항은 ANZ(2015)의 Financial Attitude 측정 도구²⁾

2) 금융자기효능감, 금융스트레스, 충동성, 금융포부의 4요인 구조

를 국내 청소년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태도는 일반적으로 저축·투자·예산관리 등의 기본적인 금융생활에 대한 선호도, 동기 및 재정적 목표, 금융에 대하여 갖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감정, 금융의사결정 및 행위의 합리성에 대한 태도, 금융 역량에 대한 자기 신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ANZ(2015)에서 제시한 금융태도 4개 하위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4개 하위요인을 통하여 금융태도의 정의인 감정, 심리적 경향 등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ANZ(2015)의 금융태도 4요인 구조가 금융태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하위요인들을 포괄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금융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특성, 금융교육 경험 특성, 금융행위 특성, 금융지식 특성으로 나누어, 어떠한 요인이 청소년의 금융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성별, 학년, 금융업 종사 부모 여부, 가정의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 용돈을 받는 형태로 구성되며, 금융교육 경험 특성은 가정에서의 금융교육 수준,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학교 이외에서의 금융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금융행위 특성은 금융 관련 대화 빈도, 지불 수단, 본인 명의 통장 보유 여부, 본인 명의 금융상품 보유 여부, 미래의 구체적 자금 마련 계획 유무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식 특성은 OECD/INFE가 제시한 표준 방법론에 따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서 성인 대상으로 2년 간격으로 조사하고 있는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의 가장 최근 조사(2022)의 문항을 청소년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3)의 조사 문항을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중학교 2학년³⁾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이다. 자료 수집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15일간 진행되었으며, 서울시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편의표집하였다. 중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3개교에서 온라인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한 응답 중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중학교 193명, 고등학교 271명의 응답을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N	백분율(%)	계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여자	208	44.8	464
		남자	256	55.2	
	학년	중2	94	20.3	464
		중3	99	21.3	
		고1	94	20.3	
		고2	100	21.5	
		고3	77	16.6	
	금융업 종사 부모 여부	없음	399	86.0	464
		있음	65	14.0	
	가장의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41	33.6	420
		대졸 이상	279	66.4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하위	8	1.7	464
		중하위	29	6.3	
		중위	259	55.8	
		중상위	168	36.2	
	용돈 수령 방식	비정기적	86	21.3	404
		정기적	318	78.7	
금융교육 경험 특성	가정 금융교육 수준	낮음	188	40.5	464
		보통	240	51.7	
		높음	36	7.8	
	학교 금융교육 경험	없음	211	45.5	464
		있음	253	54.5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	없음	352	75.9	464
		있음	112	24.1	

- 3) 현 제도상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입출금 통장 개설, 체크카드 발급 및 오프라인 사용, 인터넷 뱅킹 이용 등 스스로 금융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은 14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연구의 대상을 설정하였다.

특성		구분	N	백분율(%)	계
금융행위 특성	금융 관련 대화 빈도	매우 낮음	79	17.0	464
		낮음	123	26.5	
		보통	145	31.3	
		높음	96	20.7	
		매우 높음	21	4.5	
	지불 수단	현금	29	6.3	464
		체크카드	311	67.0	
		신용카드	124	26.7	
	본인 명의 통장 보유 여부	없음	44	9.5	464
		있음	420	90.5	
	본인 명의 금융상품 보유 여부	없음	307	66.2	464
		있음	157	33.8	
	미래 자금 마련 계획 유무	없음	188	40.5	464
		있음	276	59.5	
금융지식 특성	금융지식 점수	0	27	5.8	464
		1	45	9.7	
		2	16	3.4	
		3	37	8.0	
		4	72	15.5	
		5	67	14.4	
		6	130	28.0	
		7	70	15.1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가 44.8%(208명), 남자가 55.3%(256명)이며, 학년은 중학교 2학년 20.3%(94명), 중학교 3학년 21.3%(99명) 고등학교 1학년 20.3%(94명), 고등학교 2학년 21.5%(100명), 고등학교 3학년 16.6%(77명)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경험 역시 금융교육을 받은 학생 54.5%(253명), 받지 않은 학생 45.5%(211명)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3.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29 및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시하였다. 첫째, 금융태도 측정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Cronbach's α 계수 산출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 금융태도의 4개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특성, 금융교육 경험, 금융행위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금융태

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특성, 금융교육 경험, 금융행위 및 금융지식을 독립변인으로, 청소년의 금융태도를 종속변인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IF) 계수를 함께 확인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금융태도 측정을 위하여 활용된 23개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Cronbach's α 계수 산출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금융태도를 측정하는 23개 문항이 4가지 하위요인(금융자기효능감, 금융스트레스, 충동성, 금융포부)으로 추출이 되는지 확인하고, 추출된 각 요인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구조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동일하게 확인되는지 검증하였다.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금융태도 측정 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KMO(Kaiser - Meyer - Olkin) 측도, Bartlett의 구형성, 그리고 문항 간 상관행렬표를 살펴보았다. 금융태도 척도의 KMO 측도값은 0.88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8040.347(df=253) 유의수준은 0.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가능한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23개 문항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과 직교 회전 방법을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6번 반복 회전하여 요인회전이 수렴되었다. 고유값이 1 이상이며 스크리도표에서 급격하게 기울기가 변하는 지점을 고려한 결과 요인 수를 4개로 결정할 수 있었다.

전체 문항 가운데 요인적재값이 0.4 미만이며 공통요인으로 묶이지 않은 3개 문항(IP6(37번), FA7(43번), FA8(44번))은 분석에서 제거하였다. 20개 문항의 총 설명량

은 68.94%였으며, 각 요인별 설명량을 살펴보면 제1요인(금융포부, FA)이 20.78%, 제2요인(금융자기효능감, FSE)이 18.16%, 제3요인(충동성, IP)이 17.36%, 제4요인(금융스트레스, MS)이 12.65%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총 20개 문항을 4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였으며, 이후 신뢰도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약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정		0.88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Approx x^2		8040.347	
		자유도(df)		253	
		p		<.001	
항목	공통성	요인			
		1	2	3	4
FSE1	.760	.140	.853	.116	-.013
FSE2	.706	.096	.800	.236	.036
FSE3	.667	.118	.766	.255	-.025
FSE4	.745	.155	.807	.257	.058
FSE5	.724	.107	.749	.383	-.063
MS1	.597	-.075	-.063	.112	.662
MS2	.789	-.141	.101	.033	.871
MS3	.774	-.114	.017	.091	.868
MS4	.653	-.171	-.152	.000	.675
IP1	.693	-.068	.209	.777	.203
IP2	.841	-.042	.358	.836	.111
IP3	.813	-.017	.403	.806	.039
IP4	.801	-.126	.331	.817	.088
IP5	.621	-.123	.424	.690	.031
FA1	.814	.882	.104	-.110	-.115
FA2	.767	.854	.127	-.120	-.092
FA3	.811	.894	.085	.003	-.066
FA4	.782	.853	.196	.010	-.122
FA5	.792	.875	.120	-.041	-.104
FA6	.657	.782	-.040	.132	-.161
고유값		4.779	4.177	3.992	2.908
분산비율		20.779	18.160	17.359	12.645
누적분산비		20.779	38.939	56.297	68.942

2) 신뢰도 검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4개의 하위요인(금융자기효능감, 금융스트레스, 충동성, 금융포부)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Cronbach's α 값은 금융자기효능감은 .907, 금융스트레스는 .835, 충동성은 .853, 금융포부는 .939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금융태도를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는 .835에서 .939 사이로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한 금융태도의 4개 하위요인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한 4요인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합도지수(fit index) 중 GFI(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확인하였다. 금융태도 4요인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GFI=.872, CFI=.935, RMSEA=.079로 GFI 및 CFI는 0.8 이상의 기준에서, RMSEA는 0.08 미만의 기준에서 기준 값을 모두 충족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표 3>에 제시된 금융태도의 하위요인별 요인계수의 비표준화 및 표준화 추정치, 그리고 C.R. 값을 고려하였을 때,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금융태도의 4개 하위요인 구조 모형은 모든 요인계수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므로, 모형의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입증할 수 있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카이제곱	자유도	카이제곱/자유도	GFI	CFI	RMSEA
모델	654.657	164	3.992	.872	.935	.079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R.	표준화 추정치
금융자기효능감 (FSE)	FSE1	1.00	-		.786
	FSE2	1.14	.059	19.432***	.823
	FSE3	1.10	.056	19.481***	.824
	FSE4	1.16	.058	19.914***	.839
	FSE5	1.36	.066	20.513***	.859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R.	표준화 추정치
금융스트레스 (MS)	MS1	1.00	-		.695
	MS2	1.16	.071	16.240^{***}	.869
	MS3	1.14	.072	15.945^{***}	.841
	MS4	.94	.069	13.623^{***}	.699
충동성 (IP)	IP1	1.00	-		.733
	IP2	1.14	.051	22.558^{***}	.907
	IP3	1.26	.057	22.058^{***}	.893
	IP4	1.14	.052	22.029^{***}	.892
	IP5	1.15	.052	22.195^{***}	.797
금융포부 (FA)	FA1	1.00	-		.890
	FA2	.98	.038	25.842^{***}	.852
	FA3	1.02	.037	27.906^{***}	.883
	FA4	.95	.034	27.578^{***}	.878
	FA5	1.00	.036	27.908^{***}	.883
	FA6	.74	.041	18.189^{***}	.699

***p<.001, C.R.: Critical Ratio(=추정치/표준오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ANZ의 금융태도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의 금융태도를 측정한 23개 문항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3개 문항을 제거한 뒤 20개 문항 및 4개의 구성요인(금융자기효능감, 금융스트레스, 충동성, 금융포부)으로 추출되었다. 금융태도 측정 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금융태도의 4개 하위요인별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금융태도의 4요인 구성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태도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2.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금융태도의 차이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금융태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해 낸 사회경제적 특성, 금융교육 경험 특성, 금융행위 특성에 따라 청소년 집단을 분류⁴⁾하고, 집단 간 금융태도의 4개 하위요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

4) 금융지식 특성의 경우 0점부터 7점까지의 연속변수 형태의 점수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 검정에서는 제외하였다.

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t-검증 및 ANOVA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금융태도의 차이

구분		빈도	금융 자기효능감	금융 스트레스	충동성	금융포부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성별	여	208	3.93	3.00	2.50	3.62
	남	256	3.86	2.93	2.70	3.73
	t값		t=1.209	t=1.039	t=-2.457*	t=-1.650
학년	중2	94	4.06	2.75	2.37	3.55
	중3	99	3.64	2.81	2.79	3.37
	고1	94	3.84	2.89	2.96	3.87
	고2	100	3.96	3.00	2.35	3.82
	고3	77	3.98	3.44	2.57	3.86
	F값		F=6.825***	F=15.744***	F=9.652***	F=9.622***
금융업 종사 부모	없음	399	3.93	2.94	2.56	3.70
	있음	65	3.67	3.07	2.91	3.56
	t값		t=2.652*	t=-1.450	t=-3.012**	t=1.446
가장의 학력	고졸 이하	141	3.91	2.91	2.71	3.67
	대졸 이상	279	3.95	2.93	2.52	3.70
	t값		t=-0.704	t=-0.187	t=2.086*	t=-0.414
경제적 수준	하	8	3.30	3.25	3.08	2.75
	중하	29	3.68	2.88	2.95	3.67
	중	259	3.88	3.08	2.61	3.73
	중상	168	3.97	2.77	2.52	3.66
	F값		F=4.464**	F=8.271***	F=2.884*	F=5.039**
용돈 수령 방식	비정기적	86	3.85	2.94	2.60	3.48
	정기적	318	3.93	2.95	2.56	3.74
	t값		t=-0.976	t=-0.058	t=0.304	t=-2.222*
가정 금융교육 수준	낮음	188	3.88	3.02	2.64	3.59
	보통	240	3.87	2.94	2.58	3.72
	높음	36	4.13	2.78	2.63	3.94
	F값		F=2.889	F=2.142	F=0.268	F=4.339*
학교 금융교육 경험	없음	211	3.79	3.01	2.78	3.69
	있음	253	3.98	2.92	2.46	3.68
	t값		t=-3.287**	t=1.573	t=3.905***	t=0.046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	없음	352	3.92	2.93	2.54	3.72
	있음	112	3.80	3.04	2.80	3.56
	t값		t=1.759	t=-1.603	t=-3.208**	t=2.103*

구분		빈도	금융 자기효능감	금융 스트레스	충동성	금융포부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금융 관련 대화 빈도	매우 낮음	79	3.71	2.99	2.80	3.52
	낮음	123	3.90	3.09	2.58	3.56
	보통	145	3.92	2.91	2.49	3.75
	높음	96	3.98	2.93	2.61	3.87
	매우 높음	21	3.93	2.57	2.85	3.76
	F값		F=2.089	F=3.250**	F=2.056	F=4.021**
지불 수단	현금	29	3.32	2.84	2.63	3.39
	체크카드	311	4.03	2.96	2.52	3.79
	신용카드	124	3.67	3.00	2.81	3.49
	F값		F=30.719***	F=0.681	F=4.944**	F=10.662***
본인 명의 통장 보유 여부	없음	44	3.42	3.23	3.05	3.39
	있음	420	3.94	2.93	2.56	3.71
	t값		t=-5.368***	t=2.850**	t=3.563***	t=-2.823**
본인 명의 금융상품 보유 여부	없음	307	3.87	3.02	2.67	3.67
	있음	157	3.94	2.85	2.48	3.71
	t값		t=-1.187	t=3.044**	t=2.460*	t=-0.588
미래 자금 마련 계획	없음	188	3.86	2.99	2.65	3.54
	있음	276	3.91	2.94	2.58	3.79
	t값		t=-0.855	t=0.815	t=0.772	t=-3.708***

* : p<.05, ** : p<.01, *** : p<.001

사회경제적 특성의 경우, 성별과 가장의 학력에 따라 충동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년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4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금융업 종사 부모 여부에 따라 금융자기효능감과 충동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용돈 수령 방식에 따라 금융포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금융교육 경험 특성의 경우, 가정에서의 금융교육 수준에 따라 금융포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교 금융교육 경험에 따라 금융자기효능감과 충동성에,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에 따라 충동성과 금융포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융행위 특성의 경우, 금융 관련 대화 빈도에 따라 금융스트레스와 금융포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금융자기효능감, 충동성 및 금융포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인 명의 통장 보유 여부는 금융태도의 4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본인 명의 금융상품 보유 여부에 따라 금융스트레스와 충동성에, 미래의 구체적 자금 마련 계획 유무에 따라 금융포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청소년의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집단 간 차이 검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특성, 금융교육 경험 특성, 금융행위 특성에 따라 금융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금융지식 특성을 포함한 청소년의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금융태도의 하위요인 및 하위요인을 종합한 금융태도를 종속변인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금융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5> 회귀 모형

$Y_i = a + \sum_{j=1}^{15} b_j X_j + e$			
종속 변인	Y_1 = 금융자기효능감 Y_4 = 금융포부	Y_2 = 금융스트레스 Y_5 = 금융태도	Y_3 = 충동성
독립 변인	X_1 = 성별(1=남학생) X_3 = 금융업 종사 부모 여부(1=있음) X_5 = 가정의 경제적 수준 X_7 = 가정 금융교육 수준 X_9 =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1=있음) X_{11} = 지불 수단(1=신용카드) X_{13} = 본인 명의 금융상품(1=있음) X_{15} = 금융지식	X_2 = 학년 X_4 = 가장의 최종 학력(1=대졸 이상) X_6 = 용돈 수령 방식(1=정기적) X_8 = 학교 금융교육 경험(1=있음) X_{10} = 금융 관련 대화 빈도 X_{12} = 본인 명의 통장(1=있음) X_{14} = 미래의 구체적 자금 마련 계획 (1=있음)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특성, 금융교육 경험 특성, 금융행위 특성, 금융지식 특성이 금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회귀 모형은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설명력(R^2)은 24.3% ~ 32.2%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이 나타나는 문제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 값이 1.075 ~ 2.039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6> 금융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금융자기효능감			금융스트레스			충동성			금융포부			금융태도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상수)	2.337 (0.285)		8.200	3.695 (0.288)		12.849	4.003 (0.405)		9.891	2.614 (0.302)		8.647	-2.334 (0.437)		-5.346
성별(1=남학생)	-0.164 (0.063)	-0.128	-2.589*	-0.039 (0.064)	-0.030	-0.617	0.374 (0.090)	0.209	4.148***	0.037 (0.067)	0.027	0.552	-0.365 (0.097)	-0.179	-3.759***
학년	0.015 (0.022)	0.033	0.700	0.181 (0.022)	0.397	8.358***	0.019 (0.031)	0.031	0.633	0.122 (0.023)	0.252	5.367***	-0.026 (0.033)	-0.037	-0.795
금융업 종사 부모 여부 (1=있음)	-0.340 (0.092)	-0.183	-3.713***	0.062 (0.092)	0.033	0.676	0.311 (0.130)	0.121	2.394*	-0.210 (0.097)	-0.105	-2.159*	-0.503 (0.140)	-0.171	-3.583***
가장의 최종 학력 (1=대졸 이상)	-0.035 (0.069)	-0.025	-0.506	0.072 (0.070)	0.051	1.037	-0.180 (0.098)	-0.093	-1.830	-0.075 (0.073)	-0.050	-1.023	0.059 (0.106)	0.027	0.556
가정의 경제적 수준	0.184 (0.060)	0.165	3.046**	-0.212 (0.061)	-0.187	-3.475***	-0.245 (0.086)	-0.157	-2.853**	-0.108 (0.064)	-0.089	-1.681	0.323 (0.092)	0.182	3.490***
용돈 수령 방식 (1=정기적)	0.053 (0.075)	0.034	0.711	0.122 (0.076)	0.076	1.606	0.140 (0.107)	0.064	1.313	0.456 (0.080)	0.269	5.719***	-0.023 (0.115)	-0.009	-0.197
가정 금융교육 수준	0.031 (0.064)	0.031	0.475	0.141 (0.065)	0.143	2.177*	0.218 (0.091)	0.160	2.385*	0.047 (0.068)	0.045	0.692	-0.165 (0.099)	-0.106	-1.673
학교 금융교육 경험 (1=있음)	0.146 (0.064)	0.114	2.271*	-0.127 (0.065)	-0.098	-1.966	-0.452 (0.091)	-0.254	-4.965***	0.014 (0.068)	0.010	0.211	0.468 (0.098)	0.231	4.763***

변인		금융자기효능감			금융스트레스			충동성			금융포부			금융태도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 (1=있음)		0.078 (0.078)	0.051	1.009	0.085 (0.078)	0.054	1.082	0.076 (0.110)	0.035	0.685	-0.012 (0.082)	-0.007	-0.145	-0.030 (0.119)	-0.012	-0.252
금융 관련 대화 빈도		0.060 (0.034)	0.106	1.762	-0.110 (0.034)	-0.192	-3.194**	-0.041 (0.048)	-0.052	-0.846	0.175 (0.036)	0.287	4.834***	0.111 (0.052)	0.124	2.131*
지불 수단(1=신용카드)		-0.152 (0.078)	-0.100	-1.958	-0.073 (0.078)	-0.047	-0.926	0.123 (0.110)	0.058	1.113	-0.208 (0.082)	-0.128	-2.529*	-0.222 (0.119)	-0.092	-1.869
본인 명의 통장(1=있음)		0.403 (0.118)	0.171	3.422***	-0.363 (0.119)	-0.152	-3.058**	-0.351 (0.167)	-0.107	-2.100*	0.038 (0.125)	0.015	0.305	0.633 (0.180)	0.169	3.512***
본인 명의 금융상품 (1=있음)		-0.006 (0.074)	-0.004	-0.082	-0.175 (0.072)	-0.130	-2.433*	-0.169 (0.101)	-0.091	-1.673	-0.138 (0.075)	-0.097	-1.831	0.102 (0.109)	0.048	0.937
미래의 자금 마련 계획 (1=있음)		-0.104 (0.074)	-0.081	-1.407	-0.008 (0.075)	-0.006	-0.107	-0.065 (0.105)	-0.036	-0.618	0.183 (0.079)	0.132	2.327*	-0.003 (0.113)	-0.001	-0.024
금융지식		0.107 (0.107)	0.336	6.293***	-0.042 (0.017)	-0.132	-2.484*	-0.119 (0.024)	-0.270	-4.960***	0.038 (0.018)	0.110	2.094*	0.179 (0.113)	0.354	6.887***
모형 설명력	R2	.270			.277			.243			.293			.322		
	F	8.495***			8.801***			7.342***			9.524***			10.881***		

* : p<.05, ** : p<.01, *** : p<.001

우선, 청소년의 금융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사회경제적 특성 중 성별($p=.010$), 금융업 종사 부모 여부($p=.000$), 가정의 경제적 수준($p=.002$)이, 금융교육 경험 특성으로는 학교 금융교육 경험($p=.024$), 금융행위 특성으로는 본인 명의 통장 보유 여부($p=.001$)가 있었다. 금융지식 특성($p=.000$) 역시 금융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일수록, 금융업 종사 부모가 있을수록 금융자기효능감이 낮았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본인 명의 통장을 보유할수록, 금융지식이 높을수록 금융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둘째, 청소년의 금융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사회경제적 특성 중 학년($p=.000$), 가정의 경제적 수준($p=.001$)이, 금융교육 경험 특성으로는 가정에서의 금융교육 수준($p=.030$)이, 금융행위 특성으로는 금융 관련 대화 빈도($p=.002$), 본인 명의 통장($p=.002$) 및 금융상품($p=.015$) 보유 여부가 있었다. 금융지식 특성($p=.013$) 역시 금융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 관련 대화를 많이 할수록, 본인 명의 통장과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금융지식이 높을수록 금융스트레스가 낮았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금융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스트레스가 높았다.

셋째, 청소년의 충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사회경제적 특성 중 성별($p=.000$), 금융업 종사 부모 여부($p=.017$), 가정의 경제적 수준($p=.005$)이, 금융교육 경험 특성으로는 가정 금융교육 수준($p=.018$) 및 학교 금융교육 경험($p=.000$)이, 금융행위 특성으로는 본인 명의 통장 보유 여부($p=.036$)가 있었다. 금융지식 특성($p=.000$) 역시 충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본인 명의 금융상품을 보유할수록, 금융지식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낮았으며, 남학생일수록, 금융업 종사 부모가 있을수록, 가정의 금융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았다.

넷째, 청소년의 금융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사회경제적 특성 중 학년($p=.000$), 금융업 종사 부모 여부($p=.021$), 용돈을 받는 방식($p=.000$)이, 금융행위 특성으로는 금융 관련 대화 빈도($p=.000$), 지불 수단($p=.012$), 미래의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 유무($p=.021$)가 있었다. 금융지식 특성($p=.037$) 역시 금융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업 종사 부모가 있을수록, 신용카드를 사용할수록 금융포부가 낮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을수록, 금융 관련 대화를 많이 할수록, 미래의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이 있을수록, 금융지

식이 높을수록 금융포부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금융태도의 4개 하위요인을 종합하여 금융태도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변인을 생성하기 위하여, 20개 문항¹⁾의 요인 점수 계수를 사용하여 요인 점수(factor score)를 계산하였다. 청소년의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금융태도 요인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금융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사회경제적 특성 중 성별($p=.000$), 금융업 종사 부모 여부($p=.000$), 가정의 경제적 수준($p=.001$)이, 금융교육 특성으로는 학교 금융교육 경험($p=.000$)이, 금융행위 특성으로는 금융 관련 대화 빈도($p=.034$), 본인 명의 통장 보유 여부($p=.001$)가 있었다. 금융지식 특성($p=.000$) 역시 금융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일수록, 금융업 종사 부모가 있을수록 금융태도 점수가 낮았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금융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금융 관련 대화를 많이 할수록, 본인 명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금융지식이 높을수록 금융태도 점수가 높았다.

4. 분석 결과 논의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금융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성별, 금융업 종사 부모 여부,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금융과 관련한 자신의 능력에 높은 자기 신념을 보이며, 계획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한편, 금융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보다 금융태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금융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부모는 높은 수준의 금융역량을 바탕으로 자녀의 금융생활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주고, 관리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는 금융업 종사 부모에 대한 무비판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관심을 줄이거나 스스로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즉, 자녀의 금융생활에 부모가 개입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금융역량을

1) 부정적인 금융태도를 측정하는 문항(금융스트레스, 충동성 등)은 역코딩하여 요인점수를 계산하였다.

무비판적으로 신뢰하는 경우, 긍정적이고 올바른 금융태도를 형성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은 부모의 지원 아래에서 안정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에 금융생활 전반에 대하여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금융교육 경험이 금융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학교 금융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충동적이거나 무계획적인 태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금융태도 점수 역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가정에서의 금융교육과 학교 이외의 곳에서 받은 금융교육 경험은 청소년의 금융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및 학교 밖에서의 금융교육이 청소년 금융태도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가정 및 학교 밖에서의 금융교육이 청소년의 금융역량 함양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금융행위 특성이 금융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금융 관련 대화의 빈도와 본인 명의 통장 보유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금융 관련 대화 빈도의 경우, 주변 사람들과 자신이 금융생활에서 느끼는 고민을 나누며 조언 및 충고를 들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문제점을 고치며 발전하는 한편, 더 높은 수준의 금융 목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주변 사람들과 배울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고 올바른 금융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한편, 본인 명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이 높은 수준의 금융태도를 보였는데, 본인 명의 통장을 관리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자신만의 합리적인 자산 관리 계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금융 활동 참여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올바르게 긍정적인 금융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금융지식 특성이 금융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금융 지식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금융에 대해 많이 알수록 긍정적이고 올바른 금융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산 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거나, 금융 위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인지적 기

능과 정의적 기능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태도 형성에 있어서 지식이 주요한 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Wood *et al.*, 1995)와 같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의 결과, 금융교육 경험 특성 중 학교 금융교육 경험 요인만이 금융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금융교육이 청소년의 금융 역량 함양에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지적·행동적 차원뿐 아니라 정의적 차원의 금융 역량 함양에 금융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금융태도 함양을 위해 학교 금융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가정에서의 금융교육 및 학교 외의 금융교육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학교 이외의 다양한 기관에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 주체적인 금융생활을 하기 전 청소년 단계에서 다양한 금융행위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본인 명의의 통장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금융태도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금융상품을 다루어 보고, 금융과 관련한 의사결정 등을 스스로 해 보는 경험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주변 사람들과 금융 관련 대화를 많이 할수록 긍정적이고 올바른 금융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금융을 주제로 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과 기회는 청소년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학교 수업 시간에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며, 이를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금융행위를 경험해 볼 수 있으며, 토론 수업을 통해 금융 문제와 관련하여 친구 및 교사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태도 관련 연구가 빈약하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청소년의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

기보고식 문항의 한계로 인하여 청소년의 금융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리고 미래 금융 생활의 주체가 될 청소년의 금융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금융교육 분야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참 고 문 헌

- 공은희·성영애(2011), 중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인천시 거주 중학생을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4(4), 21-39.
- 김경자(2003), 대학생들의 화폐태도와 개인재무관리 실태, *소비문화연구*, 6(3), 33-50.
- 김지경·서정아·송현주(2023),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3-기본01.
- 이의선(2016), 소비자의 주관적 금융지식과 객관적 금융지식이 금융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금융 상품군 별 경로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9(4), 111-134.
- 이정화·윤정혜(2016),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이 투자태도, 금융기능과 펀드상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학회*, 10, 292.
- 이주형(2021),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금융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9), 693-708.
- 이학식·김영(1998), 태도 - 행동 관계에 대한 조정변수들의 역할 - 대선 투표행동의 체계에서, *소비자학연구*, 9(2), 37-64.
- 장경호(2021), 우리나라 대학생의 금융 태도 분석, *경제교육연구*, 28(2), 85-103.
- 정영선(2016), 금융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 *시민교육연구*, 48(3), 185-210.
- 최병일(2020), 국내 청소년의 화폐 태도와 금융 경제 지식에 관한 연구, *경제교육연구*, 27(1), 101-120.
- 최재경(2016),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 Klontz-MSI 척도를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9(2), 87-112.
- Ajzen, I., & Fishbein, M. (1977),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4(5), 888-918.
- ANZ (2015), *ANZ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in Australia*, <https://www.anz.com/resources/3/1/31cbc1fd-9491-4a22-91dc-4c803e4c34ab/adult-financial-literacysurvey-full-results.pdf>
- Becchetti, L., Caiazza, S., & Coviello, D. (2013), Financial education and investment attitudes in high schools: evidence from a randomized experiment, *Applied Financial Economics*, 23(10), 817-836.

- Bocchialini, E., & Ronchini, B. (2019), A Pilot Study Assessing Attitudes toward Finance among Italian Business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14(10), 44-60.
- Bocchialini, E., Ronchini, B., & Torti, F. (2022), Predicting Students' Financial Knowledge from Attitude towards Fin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17(6), 13-33.
- Boyce, L., & Danes, S. M. (2004), *Evaluation of the NEFE High School Financial Planning Program*, 2003-2004. Retrieved November 1, 2005.
- Fishbein, M., & Ajzen, I. (1974), Attitudes and opin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3, 487-544.
- _____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 Addison Wesley.
- Garber, G., & Koyama, S. M. (2016), *Policy-effective Financial Knowledge and Attitude Factors*, Working Papers Series, 430, Central Bank of Brazil, Research Department.
- Haque, A., & Zulfiqar M. (2016), Women's Economic Empowerment through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Attitude and Financial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Social Science*, 7(3), 78-88.
- OECD (2020), *OECD/INFE 2020 INTERNATIONA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 _____ (2022), *OECD/INFE TOOLKIT FOR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INCLUSION 2022*.
- Parrotta, J., & Johnson, P. (1998), The Impact of Financial Attitudes and Knowledge on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Recently Married Individual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59-75.
- Rai, K., Dua S., & Yadav, M. (2019), Association of Financial Attitude, Financial Behaviour and Financial Knowledge Towards Financial Literacy: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FIIIB Business Review*, 8(1), 51-60.
- Talwar, M., Talwar, S., Kaur, P., Tripathy, N., & Dhir, A. (2020), Has financial attitude impacted the trading activity of retail investo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58, 102341.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s' Financial Attitude

Joo Ho Lee* · Hyung Joon Park**

As the financial sector rapidly develops and changes, the need for adolescents who will live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to have a high level of financial literacy has been emphasized. In this context, research on financial education and financial literacy has been continuously conducted. However, previous research on financial literacy has primarily focused on cognitive and behavioral dimensions. However, in order for individuals to make rational financial decisions and ultimately lead successful financial lives, the affective domain, such as financial attitudes, should also be emphasized.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adolescents' financial attitudes based on this issue. The analysis revealed that factors such as gender, parents working in the financial sector, family economic level, school financial education experience, frequency of financial-related conversations, possession of a personal bank account, and financial knowledge were found to influence adolescents' financial attitudes. Through this study, by empirically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adolescents' financial attitudes, the study aimed to provide insights into what aspects should be further emphasized in future research on adolescents' financial attitudes.

Key words: Financial attitude, Adolescent, Financial education,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knowledge, Financial behavior

원고접수: 2025년 03월 10일 심사일: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4월 09일
게재확정: 2025년 04월 10일

* First Author, PhD student,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dlwng0821@snu.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joon23@snu.ac.kr).